화순서 전남 임업인 소통·화합 한마당

1000여명 참석 한마음대회 열려
임산물 요리 경연대회 큰 호응
5억 그루 나무심기 등 다짐

전남도가 임업인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새롭게 다지는 제10회 전남 임업인 한마음대회를 24일 화순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와 화순군이 후원하고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남도지회와 화순군협의회가 주관해 김영록 전남지사, 구충곤 화순군수, 임업후계자, 산림경영인, 산림조합원, 산림공무원 등 1000여명이 함께했다.

대회는 식전 행사, 우수 임업인 표창, 산림 현장 낭독, 임산물 요리 경연대회, 임산물 품평회, 어울림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우수 임업인 표창에선 그동안 임업 현장에서 산림사업에 앞장선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화순군협의회 정세종 임업후계자 등 10명이 도지사 표창 등을 수상했다.

전남지역에서 생산한 임산물을 활용한 임산물 요리 경연대회와 임산물 품평회는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밤, 고로쇠 등 1차 임산물, 황칠, 헛개, 표고 등을 활용한 음료, 조미료, 건강보조식품 등 6차 산업화를 널리 홍보해 임업인의 자긍심을 높였다. 임업인의 단합을 위해 마련한 어울림 마당에서는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체육행사가 진행됐다. 부대 행사로 임산물 6차 산업화 상품, 목공예품, 산림문화작품, 분재 전시와 꽃차 시음, 반려식물 심기를 비롯한 전시·체험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선보여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날 전남도는 임업인, 유관기관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공동 목표로 삼고 매년 1000만 그루 이상, 2050년까지 총 5억 그루 나무 심기에 온 힘을 모으자는 나무 심기 다짐 퍼포먼스도 펼쳤다.

임업인과 산림단체는 나무 심기와 숲 돌보미에 적극 참여하고, 전남도는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행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10회를 맞이하는 전남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임업인의 화합을 다지고 임업 대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일구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대표 술 한 자리…서울광장서 남도 우리술 큰잔치

직거래장터 큰잔치도 함께 열려

전남도가 주최하고 (사)전남전통주생산자협회에서 주관한 '2023 남도 우리술 큰잔치'가 25일까지 3일간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전남의 농산물로 만든 우수한 우리술을 수도권 지역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2023 전남도 직거래장터 큰잔치와 연계해 이뤄졌다. 〈사진〉

행사 기간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 방문하면 상큼한 나주 한라봉의 향과 잘 잡힌 밸런스로 호평받은 '라봉', 높은 도수에도 맛이 깔끔한 증류식 소주 '죽향41', 대한민국 고급 막걸리 시장의 문을 연 '해창막걸리' 등 전남을 대표하는 우수한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3 전남도 직거래장터 큰잔치가 함께 열리는 만큼 맛있는 남도 우리술과 어울리는 다양한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도 같이 즐길 수 있다. 지난 23일 열린 개장식에서는 7월 2023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은 죽향도가와 최우수상을 받은 해창주조장, 남도탁주, 병영양조장, 백운주가를 시상했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행사는 전통을 지켜온 강진 '병영소주'부터 젊은 세대 취향에 맞춘 '라봉'까지 다양한 전남 술을 소개하는 자리"라며 "전남 농산물로 만든 잠재력 있는 전통주가 널리 알려지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여름휴가 만족도 전국 3위…4단계 상승

방문의 해 운영·국제행사 등 성과

전남도가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에서 발표한 '연례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16개 시·도 중 3위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4단계 상승했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제주, 서울을 앞섰으며, 부산(1위)와 강원특별자치도(2위)에 근소하게 뒤졌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컨슈머인사이트는 올해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6~8월)를 다녀왔다고 응답한 1만7281명을 대상으로 주 여행지가 어디였는지, 그 지역에 '얼마나 만족했는지(만족도)'와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추천의향)'를 묻고 종합만족도를 산출했다. 만족도, 추천의향과는 별도로 각 지역 '여행자원 매력도'와 '여행환경 쾌적도' 등 10개 세부항목도 평가해 시·도별 종합만족도 등락 원인을 판단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조사 결과 전남은 1000점 만점 중 724점을 받아 부산(736점), 강원특별자치도(735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이는 7년간 부동의 1위였던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치고 달성한 성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세부 조사항목에서 전남도는 볼거리, 쉴거리 등 여행자원 평가가 두루 상승하면서 지난해 7위에서 3위로 껑충 뛰어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 전남 관광 만족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남도가 그동안 국내 관광객 1억 명,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유치를 위해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운영하고 국제남도음식문화 큰잔치와 전국체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대형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적극적인 해외 홍보, 친절·청결한 손님맞이 등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김기홍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전남 관광 경쟁력을 수치로 증명한 것"이라며 "국제농업박람회, 국제수묵비엔날레 등 남은 대형 행사에서도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 관광도시로서 전남의 면모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10월 친환경농산물에 보성 유기농 배

전남도가 10월의 친환경 농산물로 보성 유기농 배를 선정했다. 배는 기침,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과일로 알려져 있다.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 갈증 해소는 물론 민간에서는 약으로도 사용할 정도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과일이다.

2005년부터 보성군 벌교읍에서 친환경 배를 재배하는 조효익(47) 농가는 농업회사법인 녹차골 주식회사 대표로서 2007년에 처음 유기농 인증을 받아 18년 동안 꾸준히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사진〉

배는 병해충에 약해 한 번 피해를 입으면 수확이 어렵고 회복하는 기간이 길어 유기농 재배가 어려운 작목이다.

조효익 농가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자연 그대로의 농법이라 부르는 독창적 농법을 개발, 친환경농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19년에 과수분야 유기농명인으로 선정됐다.

배 과수원이 산속에 따로 떨어져 병해충 발생이 낮으며 야생초를 재배해 풀 관리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토양관리를 위해 유기농 퇴비와 낙엽 등을 함께 사용해 토양 유기물 함량도 높였다. 미네랄이 풍부한 토질에서 자란 배의 과육은 아삭하고 당도가 높아 맛과 향이 뛰어나다. 또 유기농업 자재로 고시된 충제와 은행추출물 등 다년간 축적한 유기농명인만의 천연 약제를 사용하고 배나무에 광방충기를 설치해 해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배 과수를 2.3ha(6800평) 규모로 2022년도는 60t을 생산, 약 3억4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판매처로는 학교급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남도장터 등에 안정적으로 전량 납품한다. 1년에 인증업체를 통해 4번 이상 잔류농약 검사를 꼼꼼하게 인증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완도수목원, 29일까지 그린숲 페스티벌

국화 전시·문화공연·목공예 체험

전남도 완도수목원은 오는 29일까지 2023년 완도수목원 그린숲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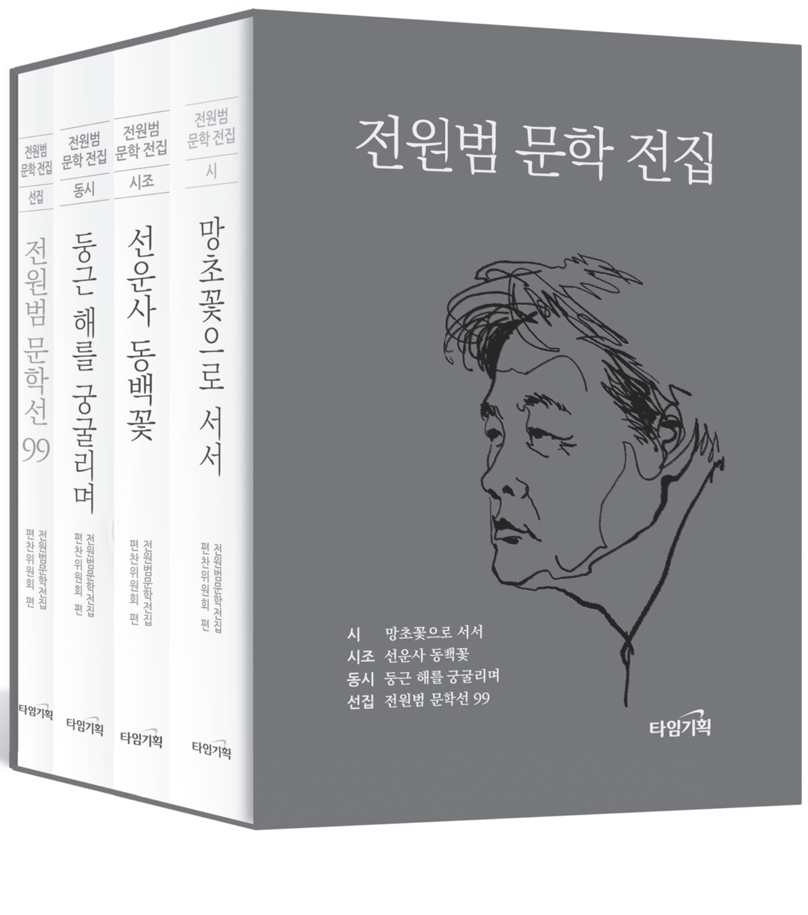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서는 완도군의 가을섬 여행 축제(플레이 아일랜드 완도)와 연계해 국화 전시, 문화공연, 목공예·생태공예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난대림의 가을'이라는 주제로 주요 관람 동선에 국화 화분, 동백 사진, 생태공예품 등을 진열하고, 산림박물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국화향기 가득한 완도수목원의 가을풍경을 연출할 예정이다. 특히 휴일인 21~22일 문화행사를 집중해 숲속음악회, 모래심리 체험, 힐링꽃차 체험,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 난대림 나무 나누기, 목공예·생태공예체험, 사진인화 이벤트 등을 운영한다. 이 기간 관람객 안전을 위해 수목원 내부 차량 운행을 금지하므로, 무료 주차장에서 도보로 행사장까지 이동해야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하반기 지적재조사 18개 지구 추가

전남도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올 하반기 광양·완도·신안 등 3개 시·군의 18개 지구(면적 468만1000㎡)의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를 확정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비는 12억원으로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번 18개 사업 지구를 포함해 131개 지구(3710만 9000㎡)로, 11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되고 있다. 이번 추가 지구 중 완도의 가용2지구는 어촌마을 진입도로 공사 지연으로 주민 토지분쟁이 가중된 곳이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공공용지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마을길 통행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 두리지구는 2021년 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안좌 퍼플섬에 위치한 곳이다.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주변 자연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광양 석사2지구는 광양읍에 인접한 지구다. 향후 개발에 대비한 현실 경계를 반영해 도시기능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사업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둥근해를 궁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돼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창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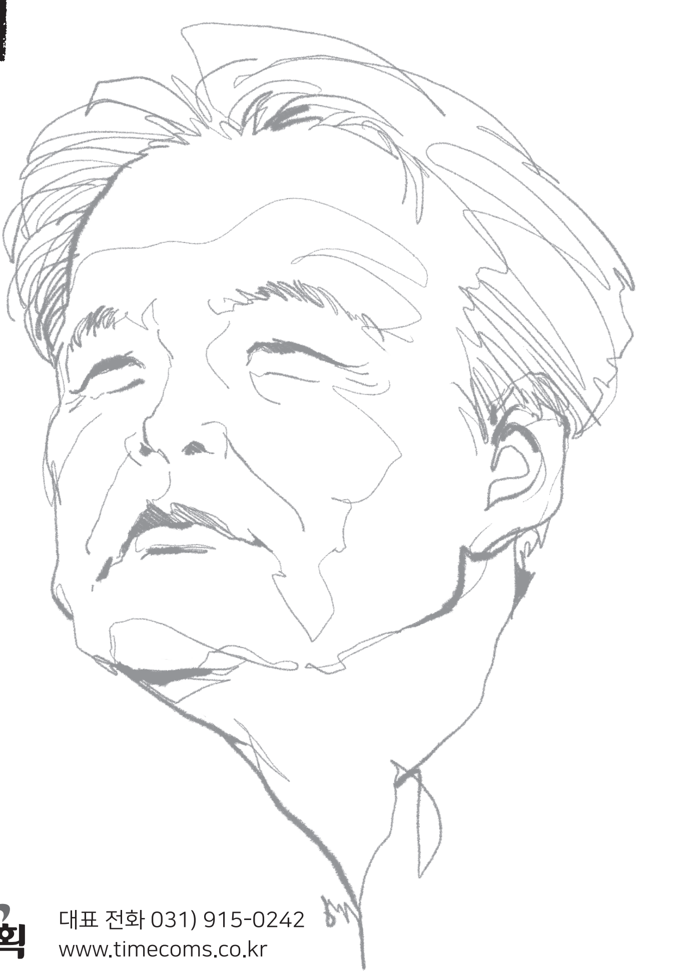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둥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